

보도분류	브리핑() 보도자료 제공(✓)
보도일시	2021. 6. 16(수)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작성과	스마트시티과
담당	과장 전유도, 스마트인프라팀장 최성호, 담당 유다혜(032-453-7476)

“스타트업 경쟁력은 전문지식 습득... ‘스타트업 런치클럽’ 개최”

인천 스타트업파크 매월 2·4주 수요일 점심시간 강연 통해 법률 등 전문지식 제공
 첫 번째 런치클럽 행사...강혜미 변호사 ‘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투자유치 법률 이슈’ 개최

- 인천경제자유구역청(청장 이원재)과 인천테크노파크(원장 서병조)는 인천 스타트업파크가 16일부터 ‘스타트업 런치클럽’을 시작, 입주 스타트업들의 경쟁력 향상에 나섰다고 이날 밝혔다. 런치클럽은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세미나다.
- 오는 12월까지 매월 2·4주 수요일 11:30~12:30 인천 스타트업파크에서 열리는 스타트업 런치클럽은 입주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진행된다. 전문가 강연을 통해 스타트업 운영에 필수적인 법률지식, 투자유치방안 등 전문 지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최신 트렌드를 읽고 서비스 차별화를 위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역사, 미술 등 인문학 지식까지 들려준다.
- 16일 인스타 I 6층 커넥트홀에서 개최된 첫 번째 스타트업 런치클럽에서는 ‘법무법인 별’의 강혜미 대표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‘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투자유치 법률 이슈’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.

- 오는 30일 두 번째 스타트업 런치클럽에서는 윤경옥 소믈리에가 강사로 나서 ‘와인, 그리고 비즈니스 매너’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.
- 스타트업 런치클럽은 인천 스타트업파크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입주기업 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다. 현장 참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홈페이지(startuppark.kr)를 통해 사전 신청한 입주기업 30명 내외로 인원이 제한된다.
- 유시경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은 “스타트업 런치클럽이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 편리하게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”며, “나아가 관심 있는 시민들도 온라인을 통해 많은 참석을 바란다”고 밝혔다.
- 한편 인천 스타트업파크는 창업자·투자자·기업·대학 등 다양한 창업벤처 구성원들이 열린 공간에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개방형 클러스터이자 국내 최대의 스타트업 지원 공간이다.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·스마트시티·바이오 융합 분야의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실증, 투자, 글로벌 진출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. 올해는 스타트업 77개사가 입주를 마친 상태다.